聖 句
육신이 입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교 시
진 리
평 화
자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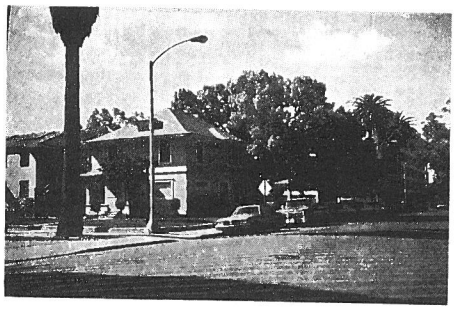
全州大新聞

발행인(代)嚴英鎭
주 간 元濟植
편집국장 李仁豪

발 행 소
전주시 효자동 3가1200
全州大學出版社
전화 (80) 2 4 4 1 ~ 2
우편번호 560-759

제299호

1988년10월27일(목요일) 〈1965. 5. 15창간〉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86년8월27일 문공부등록 다-410〉〈1985년12월31일제3종우편물(나)급인가〉 〈주간〉〈1〉



◇민족주의자 도산 안창호선생이 독립운동 당시 거처하시던 집으로 현재 미국 로스엔젤레스 남가주대학 구내에 있음.

민족주의 토대위에 국제주의 필요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위에 행동하는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Ⅰ. 서 언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는 나라이다. 어렸을때 부터 상전비금수감상이라고 배운것이라든지 인심좋고 살기좋은 나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외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자료와 그 보도내용들을 대할때 자식을 키우고 제자를 양성하는 학부를 지녀고 있는 사람에겐 한낱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격정이 솟게 한다. 과연 이래서도 되는가? 과연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또한 국가의 녹봉을 받으시던 거창한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귀빈대접을 받던 분들이 이제는 치욕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일들, 이 모든 것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상세히 보도되고 방영되는 세상임에 이를 숨길 수도 감쌀을 수도 없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민족주의의 감정으로 감싸줄 수도 없고, 또 그렇수록 우리 민족의 대외적 인상만 나빠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여러나라가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가까워 졌다. 먼 나라의 소식도 위성중계를 통하여 금방 안방에서 보거나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나라는 불가피하게 독자성을 유지하여 가면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검토하여 보고 민족 자주의 길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민족주의

민족주의(nationalism)란 민족의식을 제일시로 하여, 민족 생활의 확립과 발전을 정치적 문화적 최고목표로 한다는 주의로서 19세기 초부터 국가형성의 주요원리가 되었으며 타민족의 지배를 부정하고 단일민족에 의한 국가구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경향을 말한다. 특히 14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20세기 초에 이르기 까지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경쟁은 피압박 민족들이 자주적 방안으로서 민족주의를 고창하게 정이다.

우리 백의민족은 5천년전에 개국한 단군조선 이래 한반도와 만주대륙을 거점으로 하여 삼한시대 삼국시대 발해와 신라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과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가운데에 몽고족의 침략이나 왜족의 침략에 대하여 저항한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3.1독립운동이나 6.10만세운동, 그리고 끈질긴 독립운동과 투쟁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민족주의 발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머나아가 수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중국이나 나가서 귀빈대접을 받던 분들이 이제는 치욕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일들, 이 모든 것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상세히 보도되고 방영되는 세상임에 이를 숨길 수도 감싸줄 수도 없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민족주의의 감정으로 감싸줄 수도 없고, 또 그렇수록 우리 민족의 대외적 인상만 나빠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여러나라가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가까워 졌다. 먼 나라의 소식도 위성중계를 통하여 금방 안방에서 보거나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나라는 불가피하게 독자성을 유지하여 가면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검토하여 보고 민족 자주의 길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민족주의

민족주의(nationalism)란 민족의식을 제일시로 하여, 민족 생활의 확립과 발전을 정치적 문화적 최고목표로 한다는 주의로서 19세기 초부터 국가형성의 주요원리가 되었으며 타민족의 지배를 부정하고 단일민족에 의한 국가구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경향을 말한다. 특히 14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20세기 초에 이르기 까지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경쟁은 피압박 민족들이 자주적 방안으로서 민족주의를 고창하게 되었다.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주의 때문일 것이며 그 때문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신흥공업국가군 (NICS : New Industrial Countries)의대열에 끼어 한국상품이 수출되는 것이나 세계 각국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도 민족주의 때문일 것이다.

Ⅲ. 국제주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란 일반적으로 국가상호간의 협조를 본위로 하여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일컫는다.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 수효는 172개국 이고 UN회원국은 159개국이라고 최근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우호적인 관계도 있으나 반대로 적대관계를 이루어 전쟁이나 대결 상태를 갖는 나라도 있다. 더나아가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을 초월하여 교역을 위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우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없는 나라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구의 강국 들인 영국이나 불란서, 서독등도 미국과 함께 NATO 동맹국으로 미군이 유럽에 배치되어 주둔하고 있다. 미소간의 동서화해를 하면서도 동맹체제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소국일수록 안보의 위협은 크며 방위비의 분담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아진다.

물론는 경제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한국의 주요 해외시장이다. 1988년의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1986년 한해 동안 미국의 대한 수출이 63억 5,500만달러이고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127억 2900만달러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63억 7400만 달러나 된다. 한편 1986년 한국의 무역수지가 42억 달러인 것을 감안 할 때 한국이 미국에서 얻는 무역흑자는 세계 기타 국가에서의 무역 적자를 메꾸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86년의 무역적자가 1526억5700만달러나 된다. 그러므로 큰나라 답지 않게 동상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도 보호무역주의를 미점부가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상품이 미국의 어느 마켓에서나 흔히 볼 수 있고 그들은 말고 사는 것이 자유롭다. 길거리에서 한국산 「포니」 「에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신통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러한 좋은 수출시장을 효시나 잃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국가간의 제반 교류가 확대되었으므로 국제주의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우선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한국의 소식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교통의 발달로 아무리 먼 나라도 하루 이상 걸리지는 않는다. 한·미간의 여객기운항도 「로스엔젤레스」까지 주 18회, 「오늘투루」까지 7회, 「뉴욕」 간이 10편으로 1주에 모두 25편으로 승객 1만여명이 된다. 그외에 외국여행기도 수 없이 많이 운항하며 중동과 유럽노선에도 국내외 여객기가 수없이 많이 운항하고 있어 국제적인 교류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주의는 한국에서 필요한 일이 되었고 폐쇄적인 쇄국주의와 비민주적 통치방식은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金千孝
행정학과 부교수

그러므로 한국의 공업화의 수준만큼 우리 민족의 제반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줄 믿는다.

첫째로, 우리는 감성적 민족주의에서 이성적 민족주의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감정을 앞세우는 배타적 민족주의는 구시대의 산물이고 흙치수단이었음도 사실일 것이다.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위에 행동하는 민족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리를 찾지도 못하고 양신만 사라는 외교도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일 것이다.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신의의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는 6·25이후 중공을 중공오랑캐로 호칭하고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근래에는 자유중국을 앞보며 중국에 일작하려 추파를 던지고 있다. 소련에 대하여도 6·25남침, 그리고 최근 대한항공여객기 격추와 인명의 피해에 대하여 분노하던 때도 몇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소련 선수들 출현하거나 「쇼요」 부용단의 공연을 보려고 야단 법석이었다고 한다. 일본에 대하여는 우리의 선열들을 무참히 짓밟고 잔인하게 복숭을 앗아 간 나라인데 그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금년 8월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것을 보면 한국인의 14%가 日本에 대하여 호감(friendly feeling)을 갖고 있고 51%가 부정적이며 젊은 세대는 거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한국에서의 조사 내용을 보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은 공업이 발달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의 발달된 기술을 배워야 하겠지만 「4%」 된 사람, 특히 일제식민통치를 체험한 세대가 친일적정함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왔던 우방의 민족을 반을 만도 하며, 中共과 소련에의 추파는 6.25전쟁에서 남동강까지 실톤된 국토를 찾아준 16개 UN참전국의 경멸을 받아도 부끄는다 널 것이다. 끝 국제사회에서 경멸을 받지 않도록 외연해야겠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긍지를 지녀야 신의를 얻을 수 있단고 본다.

셋째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같다.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는 전근대적 농업사회의 특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공사조직에서의 관리방식은 Riggs교수가 제시하였던 「프리즘」 사회의 관료제 모형인 「Sala」 모형의 특색을 지니고 있어 문제가 많고 요사이 국정감사에서 발표되는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등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의 작태는 「Sala」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관민밀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태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비춰지고 법죽을 사게 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자주의 길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녀왔던 자세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본다.

Ⅳ. 민족 자구의 길

우리 민족은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은 듯 하다. 우리 나라가 민족주의의 토대위에 국제주의를 택하여야 된다는 것은 타국의 압력에 의한 것 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으로서 중공이나 소련같은 대국들뿐아니라 여타의 후진국으로 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이 올림픽만만 외친하여서는 4천만 인구의 먹을 식량도 부족한 형편이며, 공업화를 위한 원자재의 수입, 동력의 원천인 원유의 수입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동 회교 국가와 문호는 열려야 하고 부족한 식량과 사료의 수입을 위해서는 곡물생산이 많은 미국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노릇이고, 선진공업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을 외면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열어야 하나 그 렇게 시장개척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인에 의한 민족주의적 저항을 받지 않는 시장으로 한국의 국인을 위하여 필요한 나라이다.

그러나 외국에 비져지는 한국은 공업화의 수준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라고 높이 평가를 해주거나 우러러 보아 주지 않는 다는 점이 큰 문제다.

Ⅴ. 결 언

한국의 민족주의는 우리의 역사에서 필연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토대위에 국제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는슬하였다. 그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오늘날 국가간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성적 민족주의와 국제적 신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과 의식구조와 관리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선열들은 민족주의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하였을 것이다. 이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 등지에 본거를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산 안창호선생도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선생이 그 당시 거처하시던 거택이 지금도 「로스 엔젤레스」시 「씨언 펠리포니아」 대학교 (USC) 구내에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를 구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그 토대의 일부가 뿌리감혀 있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고 신망을 얻어야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민족의 장래에 유익할 것으로 본다.

世流一針

三清洞

요새 국장기에는 변강쇠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변강쇠라는 말은 원래 판소리 사설인 변강쇠 타령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영화를 보지못한 나로서는 영화 변강쇠와 그 타령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다만 선전하는 팜프렛이나 팜플릿 보면 매우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참이 놀격 상쾌지기도 한다.

우리의 판소리는 田이나 李, 孫을 권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그 극적인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춘향가에서 어사도가 출도하는 장면이나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은 언제 들어도 실지가 않다. 유교원리로 볼때는 심청이가 인당수 푸른물에 몸을 던지는 것은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써의 殺身成仁이라 할수 있는데 이 효도는 희생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해피 엔드로 끝맺고 있다.

심청이가 인당수 깊은 물에서 다시나와 환생함을 연도록 하여주는 것은 옥황상제인데 이 옥황상제는 頭教의 三神尊에 하나인 玉淸 天尊神이다.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바다위에 떠오르는 것은 불교적 설화가 가미된 것으로써 도교의 삼신과 부처님의 법력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도교를 숭상하는 신앙도 깊어서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종로 소격동이라 부르는 곳도 본래 도교의 신을 섬겼던 소격서가 있었다는 데서 소격동이란 일컫게 되었고 三淸洞도 또한, 도교의 三神인 玉淸, 上淸, 太淸을 모셨다고 하여 이곳을 三淸洞이라 이름 붙였는데 조선조 후기까지, 아니 일조제 까지만 해도 이곳은 淸足하는 곳이었다. 三淸이란 불교에서도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니 반야의 지혜를 배우는 보살은 세가지의 淸淨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心淸淨, 身淸淨, 相淸淨이 그것이다.

心身을 淸淨하게 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지만 諸相이 無相임을 깨닫는 相淸淨이야말로 더욱 힘든 일이어서 상청이라는 말조차 함부로 입에 담기를 어려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일이 언제 부터인가 두려움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물도 깨끗, 마음도 깨끗이라는 표어를 걸고 상청교육이라고 하였다 하니 그것은 제법 그럴싸하지만 그 발상이 淸淨 心身相에 있었지는 알 수 없고 다만, 몸도 마음도 깨끗함을 교육시켰다면 그 마음가짐이 부처님 속살만큼이나 청정하지 않고서는 감히 남의 앞에 나서서 상청을 말하지 못할것이다. 하물며 기자라고 입게보인 놈, 야당이라고 주목받던 놈, 김가라에 쓰쿨인 소변금지 팻말을 지글런조라고 정못읽어 방뇨한번으로 잡혀온 놈까지 수많은 확한 목숨을 상청이라는 이름을 붙여 때려죽이고 총질하여 죽이고 자살하여 죽게하기 까지 만들었던 그 집단이 대명천지 밝은 날에 「원하는 것은 확실이나 이룩수 있는 아 대한민국」 안에 엄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나는 요즘 가끔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곰곰히 자문하여 보는 때가 있다. 근래에 우리는 소위 7·7선언을 통하여 북방외교와 북방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마쳤으며 국가의 원수격 유엔총회에서 명연설을 하여 모든 유엔대표들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모든 나라들은 우리를 칭찬하였고 대통령의 말대로 세계는 우리를 감탄국으로 대우하여 주고 있다는데 과연 나는 멋옛한 선진국 국민인가? 우리는 지금 선진 조국에 살고있으며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속에 안녕질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도 모두가 허풍스럽지 않게 들리지 않는 것은 어찌된 연유인가? 그 까닭은 간단하다. 『亂世를 治世로 바꾼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金씨와 그 『계승자로서의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국정감사장의 당당한 증언이 웅변으로 대답하여 주는 명쾌한 해답이라 할것이다. 또한 이 대답을 높이 평가한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가 매우 크다. 그것은 어쩌면 허상을 진실로 착각하고 장꼬대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새로운 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마다에 신뢰심이 싹트고 도덕성에 근본한 참된 힘이 발휘되는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음이 아니라 엄청난 살인과 고문과 폭정 부패와 싹쓸이를 일삼았던 全氏의 제승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들의 지지자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꿈을 깨어야 할것이다. 우리의 갈길은 또다시 멀고 험한 것이다. 〈原峰〉

사 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89학년도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를 이끌어나갈 총학생회장 등의 선거가 11월 9일에 실시된다는 선거공고가 발표되었다.

전체국민이 합시 국가적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란 국민권이 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 국민주권의 행사를 대행케 하는 것으로,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선거없는 민주정치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따른 통치기능을 수행할 때만이 민주정치는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니뭐니해도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대학이 어느 정도나 민주화되고 발전되는가 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나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영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운영에 반영시켜야 할 학생대표들을 뽑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자치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총학생회장 선거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총학생회장 선거를 바라보는 7천 천장인의 기대 또한 커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물론 선거를 주관하는 담당자들까지도 이번 선거가 전주대의 민주화의 디딤돌이 필수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음 두가지를 당부한는바이다.

첫째로, 본래 민주주의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목적보다는 방법을 중시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수결에 의한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수자에 의한 승복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승복은 공평정대한 방법과 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의연한 자세로 페어 플레이 정신을 발휘하여 누구나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바란다. 전주대학교의 선거 때가 되면 시내 다방가가 활기를 띠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들은 것이 작년까지의 우리들의 이었다. 가장 신성해야할 주권의 행사가 돈 몇푼에 의해 머러워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얼굴에 침뱉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작년까지 일쌍이 많았던 다방선거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였다니 여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수 없겠다.

둘째로, 다수결에 의한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선거는 선거권자인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때에만이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7천 학우가 존재하는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천여명 내외의 투표만으로 학생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 학교의 선거제도에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임할으로써 당선자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차기 총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총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는 우리 전주대학교의 민주화를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기획시리즈 변혁과 통일을 위한 논리—① 허리잘린 시대의 40년 정치

○…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강 …○
○… 대국들의 영향력없이 과연 허리잘려있 …○
○… 는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질것인가? …○
○… 해방 이후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
○… 통일의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
○… 변혁을 꾀하고 올바른 통일의 방향 …○
○… 을 모색해 보자. 〈편집자주〉 …○

우리의 정치사는 그야말로 모순과 모순 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국가의 안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권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 해방된 한국민족의 존재양태를 규정하게 되어 주체성에 있어서의 질적 발전의 계기가 크게 여제되었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억압되어 오랜 모든 민족적 교구가 일시에 표면화되면서 정당과 사회단체가 무질서하리만큼 많이 생겨나 정치적 혼란상태가 전개되어 결국 45년 12월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이 3상회의 결정이 바로 5년간의 신탁통치와 동일시됨으로써 찬탁과 반탁의 양 진영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 찬탁과 반탁의 문제가 해방 후 3년간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좌우했으며 한국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했다.

1948년 남·북이 각각 다른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에 따르는 대립과 갈등 또한 무척 심했다.

남로당을 비롯한 일부 단선 반대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나 단선은 예정대로 5월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그 결과 8월15일 이승만을 중심으로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되었다.

그러하여 해방공간이라 불리는 미군정이 3년만에 끝나고 정권이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양한 한쪽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인플레의 격화, 대중생활의 피탄, 부정·부패의 만연, 치안의 혼탄, 정부재정의 엄청난 적자, 사회불안 등을 생한 한국전쟁은 이승만의 정권유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전란 중 이승만의 유혈한 정치적 라이벌들이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어 52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다시 없이 유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는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들의 비탄을 받아나피 했고 국회로부터도 신임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승만정권은 차츰 그 기세가 거세되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집권자로서의 온갖 권력수단을 총 동원하였다. 갖자기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장경찰을 동원,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등원하는 국회의원들을 국제경상상태과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구실로 버스까지 동원, 연행, 구속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는 한편 정책협명의 특혜단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공갈협박하는 등 그의 극악무도한 독재정은 극에 달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 반대세력을 공산당이나 용공, 좌경으로 몰아부치는 한국정치에서의 오탠 풍토가 이승만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이승만의 이버릇은 이미 미국에서부터 싹튼 수법이다.

결국 이승만정권은 52년 7월 4일 협박소나 강공중인 호텔에서 경찰호위하에 국회의원들을 끌고와와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또한번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그뒤 54년 4사5일 개헌으로 56년 재임과를 했고, 다시 60년 3.15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나 그 꿎은 4.19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승만이 물러난뒤 한국정부는 허정을 중심으로한 과도정부가 운영되다가 내각제 일제로 개헌안이 제출되 통과됨으로써 7월29일 민·참의원 총선을 거쳐 8월 8일 제 2 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세력다툼과 사회적인 불안정은 연일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여 결국 박정희를 중심으로한 군인들의 세력에 의하여 밀려나고 말았다. 이른바 5.16군사쿠데타.

이때부터 한국정계는 군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5백년 이상의 오랜 문민정치 전통의 한국사상에 5·16은 군부의 기습적 정권탈취라는 쿠데타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등장, 3년 기탄의 군정을 거쳐 그후의 현대 한국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분을 중점으로 누비며 심대한 영향을 미친일대의 사건이 곧 5·16군사쿠데타인 것이다.

이제됐든 당시 쿠데타의 주역은 18년, 결국 박정희는 그의 심복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비명횡사함으로써 철의장막시대, 유신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박정희시대로서 끝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의 여망은 박정희가 키워놓은 정치군인들에 의해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10.26을 계기로 12.12와 광주사태를 거쳐 또 다른 군부의 씨앗이 잉태됐으니 이것이 요즘 그렇게도 말이 많은 제5공화국 7년동안의 전두환정권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제 5공화국이 어떠한 형태로 기록될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난 부정과 비리의 후유증을 남긴것 만은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은 그가 밝힌대로 명화적인 정부이양을 하고 물러섰으나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은 유감이다. 어쩌됐든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한국정치가 그동안 은닢 수난과 주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발전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음은 물론 장기집권을 견제하여 민주화를 앞당기려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정신 또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두환정권은 또 하나의 군부정권을 임태시켰으니 그것이 곧 제6공화국의 노태우정권이다.

16년만에 다시 부활된 대통령직선제, 가까이는 80년의 5·17과 멀리는 61년의 5·16이래 25년간의 「군부통치」를 물리친 적대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문민통치에 임각한 입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하면 그런 제13대 대통령선거가 갖은 의의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권에 눈이 어두운 야권의 두 김씨의 분열은 또 다른 군부정권을 출범시켰고 그동안 장래를 있던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더욱 극한 상황으로 부채질하는데 그쳤다.

허리잘린 시대의 40년 정치 즉 군부 정권은 26년에 이른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방후 미군정에서부터 시작된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혼란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으니 이 나라, 이민족의 참된 민주화의 앞길은 언제쯤이련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사는 그야말로 모순과 모순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국가의 안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권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해방후 40여년이 계속된 정쟁, 그로인한 국토분열과 민생피폐는 국가안정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새더운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변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린민족의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빛한 기획부장〉

바로 잡음

제298호 기획시리즈 필자 김희정 (국문·1)을 김희진으로 바로잡습니다.

대학만평

탐방 취업보도부를 찾아서 ⑥

현대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정점 더 복잡·다양해지고, 직업은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그로인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 적재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정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곳이 취업보도부이다.

본교 취업보도부는 지난 85년 6월 산학협동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협력하여 교육과 연구의 공공목표를 달성함)에 의거 대학의 이념과 기업체의 경영방침을 고려한 것을 모토함) 을 통한 이론과 효율적인 취업보도 발안연구를 목적으로 「직업교육 연구소」라는 부속기관으로 개설되었으나, 지난 1월 학생처 산하의 취업보도부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개명된지 10개월째가 되어도 여전히 직업교육 연구소라는 푯말이 버젓히 붙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교생 6천여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시설 또한 미비한 취업보도부에는 사무용 책·걸상, 캐비넷 진열장 등이 간단하게 배치되어 있을 뿐이며, 매일같이 각각의 취업정보에 대해 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사기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새삼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진열장에는 각 기업체의 취업정보자료지가 깨끗하게(?)비치되어 학생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했다.

현지, 취업보도부에는 교직원 (9P) 과 근로학생 (女) 2명만이 겸게는 1천여명의 졸업예정자들을, 넓게는 6천여명의 재학생들을 상대로 벅찬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장, 과장 또는 계장, 여직원들이 공석인 실정이다. 그로인해 근로학생이라는 직분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학생의 경우, 사무보조 및 기타 제반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반사원의 업무량과 엇비슷하여 학교측에서 근로학생을 두는 진정한 의미마저 희석화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에게 취업정보 및 진로정경과 시험대책 방법에 관한 보탬을 주고자 지난 87년 9월 「직업선택과 취업정보」라는 책을 발간 하였으나, 올해는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그 것마저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비한 조건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탓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때문인지, 해마다 취업율이 떨어지고 있다. 취업보도부에서 제공한 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85년도 취업율은 35.5%, 86년 29.7%, 87년 24%로 나타나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취업보도부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1천여명의 졸업예정자 가운데 고작 20여명에 불과하다.

한편, 취업보도부의 중점 추진 사항을 보면 첫째 취업에 대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매년, 취업특강을 3회씩 실시하고 취업안내 책자를 제공, 배포하는 것이며, 세째 각 기업체에 취직된 동문들의 직장을 파악하여, 취업정보를 알수, 이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취업보도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위치 (현재, 본관 3층) 를 학생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접고열당실과 연관되어 새로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및 취업소식에 대해 각 단대 게시판과 보라리 게시판에 일률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외원 채용에 있어서도 본교 졸업생 채용하여 적게는 취업난 해소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협정업무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학기 모집 및 희화공과 더불어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우수자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마련과 동시에 초청강연회및 세미나를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실시할 수 있도록하여, 취업보도부가 정체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장영미기자〉

斷想

애국가와 애국심

매일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래가 있다. 1년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들려오지만 사람들은 단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만처럼 흘려들을 뿐 저 노래가 우린에게 무엇을 외미하는 노래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음악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존재해야 할 애국가인 것이다.

애국가! 음림피큼메탈 시상식 때 태극기를 가장 높이 올리며 울며 머지는 자랑스러운 애국가가 그러한 특별한 때에만 중요시되고 평소생활에서는 전대시킬는 것이 바로 한국 애국가의 실정인것이다.

단지 애국가가 국장이나 현사시장에서만 형식적인 절차로 의례 치루어지고 또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우리는 과연 애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태극기의 경우도 애국가와 다를 바 없다. 국경일도 가장 많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볼 때 국군의 날, 한글날 등 일년에 한 번뿐인 국경일은 각 가정이 태극기를 집앞에 달아 그날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날 휴일이라고 받아들일 뿐 그것으로 끝이었다. 결국 예정에 비해 그가치는 퇴색되어 버렸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어떤 친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번뜩한 집한칸을 두고 국경일 때 어느 가정보다 일찍 태극기를 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한마디에는 우리의 경제현실과 국가관이 나타나 있었다.

사실 애국가나 태극기를 대할 때 단지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애국의 척도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예로 미국을 볼 때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진 국가이지만 나름대로 그나라 국민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나타낸다. 스포츠유니폼에 국기를 힌트로 해서 만들어 입는 그들의 모습은 조그마한 것에서 부터 그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시로 발휘하고 있다.

애국가에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 본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도록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위선양이라고 사방팔은 말하지만 진정한 국위선양은 외국인이 우리의 애국가를 듣거나 태극기를 보았을 때 그 외국인의 뇌리에 애국심에 가득찬 국민이 살고 있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생각돌도록 하는 것이라 본다. 즉, 어느 개인의 국위선양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눈에는 애국가가 들려올 때 경의를 표하는 우린 국민도무의 모습이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이미지를 남게 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애국가나 태극기에 경의를 표시함는에 자국 국민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의 애국심은 아직도 후진국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애국심은 일상생활에서의 조그마한 관심에서 우리들의 행동으로 또한, 국민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타내여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하겠다.

〈박민상기자〉

중외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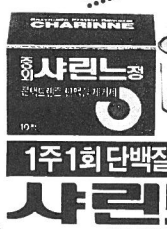
콘택트렌즈—
단백질제거가 곧 안질환 예방

단백질제거제 하지 마시고 샤린느라 불러주세요
샤린느 정
*지금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읍니다.

1주1회, 샤린느로 단백질을 제거해주십시오.

단백질 제거를 하지 않으면…
단백질 제거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연속 착용렌즈 끼셨다고 안심하십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콘택트렌즈 전문점이나 안과를 찾아서 단백질을 제거하십니까?
이것은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리법이 아닙니다.
콘택트렌즈는 1주일 한번씩 단백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려움증, 눈의 충혈, 이물감, 시력감퇴가 야기되며 렌즈의 수명도 단축됩니다.
단백질은 식염수로 닦는다든가 소독을 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콘택트렌즈라도 1주일에 한번씩 단백질 제거는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단백질 제거제 샤린느 탄생!
짐에서 단백질 제거를 하시는 분께서는 단백질제거제를 구입하시기가 무척 힘드셨죠?
시제 중외제약의 샤린느가 탄생되었읍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읍니다.
샤린느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간편합니다.
샤린느로 단백질을 제거하신뒤는 렌즈를 소독하기 전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1주일에 한번씩 해 주십시오.
눈이 충혈되거나 안정화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야도 훨씬 밝아지고 렌즈의 수명도 연장됩니다.
그냥 단백질제거제라 하지 마시고 샤린느라고 불러 주십시오.



1주1회 단백질제거제
샤린느정
권장소비자가격 : 1정—500원

*의약사범 근절하여 건강사회 이룩하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89년 총(여)학생회장 입후보자

▲기호1번
정 : 국승일 (회계 · 3)
부 : 김경원 (회계 · 3)

▲기호2번
정 : 고영내 (2부무역 · 3)
부 : 박경희 (수학 · 3)

▲기호3번
정 : 안만상 (회계 · 3)
부 : 신동만 (국문 · 3)

▲기호4번
정 : 최만열 (2부경영 · 3)
부 : 유창희 (무역 · 2)

▲기호5번
정 : 서인철 (2부무역 · 3)
부 : 송귀철 (불문 · 3)

▲기호6번
정 : 정진식 (국교 · 3)
부 : 김종국 (한교 · 2)

▲기호7번
정 : 김보영 (경영 · 3)
부 : 이신재 (영문 · 2)

▲기호8번
정 : 김재환 (경영 · 3)
부 : 전승일 (국교 · 2)

▲기호9번
정 : 양규호 (법학 · 3)
부 : 안명렬 (영문 · 2)

▲기호1번
정 : 최영애 (국교 · 2)
부 : 김경희 (독문 · 2)

치열한 학생회장 선거

총학생회장 9명, 총여학생회장 1명, 각단대회장 22명 입후보

89학년도 총학생회장및 총여학생회장, 각 단대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발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3시 최종 접수결과 총학생회장에 9명, 총여학생회장 1명, 각 단대회장에 22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일정은 지난 24일에 선거사무실 배정과 벽보부착, 25일 후보자 프랭카드 설치가 있었고, 오늘(27일) 1차유세, 28일 선관위 주최 토론회, 11월2일 이부대생을 위한 2차유세, 3일 선관위토론회, 7일 후보자간 토론회, 8일 3차유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89학년도 학생회선거는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와 각 단대회장 입후보자가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 평향한 반면 총여학생회장과 각 단대 여학생회장에는 단일후보만이 출마하는 저조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회폐적인 「타방선거」, 「돈뿌리는 선거」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다수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학내 선거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유권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관위 주최 토론회와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89학년도 입후보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각 단대 학생회장 입후보자

▲인문대
기호1번 : 조진호 (국문 · 2)
기호2번 : 이형권 (독문 · 2)
기호3번 : 박종훈 (영문 · 2)

▲법정대
기호1번 : 최정범 (행정 · 2)
기호2번 : 양방준 (법 · 2)
기호3번 : 최성호 (행정 · 2)
기호4번 : 김성진 (행정 · 2)

▲경상대
기호1번 : 남봉우 (회계 · 2)
기호2번 : 권용순 (무역 · 2)
기호3번 : 최성규 (경영 · 2)

▲사범대
기호1번 : 이학근 (일교 · 2)
기호2번 : 김희근 (사교 · 2)

▲사범대여학생회장
기호1번 : 양도엽(국교 · 2)

▲이공대
기호1번 : 최승욱 (수학 · 2)
기호2번 : 박연석 (생물 · 2)
기호3번 : 오진열 (물리 · 2)

▲예체능대
기호1번 : 박용균 (미술 · 3)

▲지역대
기호1번 : 신성보 (사회사업 · 1)
기호2번 : 이정말 (지역경제 · 1)

▲이부대
기호1번 : 임종형 (경영 · 2)
기호2번 : 고영준 (무역 · 2)
기호3번 : 민주호 (회계 · 2)

전주 조각가회 야외 창립전

전주조각가회 (회장 : 김귀복)에서는 「제1회 야외조각전」을 지난 25일부터 내달10일까지 인문대 앞 정원에서 갖는다.

이번 「야외조각전」은 학교 발전과 환경미화라는 취지아래 박현경씨의 「가을소리 (석고+철 50×120)」, 임동주씨의 「씀띠 (철 300×350)」 등 모두 45점이 출품되었다.

협소한 실내공간을 탈피하여 야외로 장소를 옮겨 문화공간의 영역을 넓힌 이번 야외전은 특히 별다른 문화행사가 없는 본교 실정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의욕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한편, 전주조각회는 본교 예체능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을 한 졸업생과 재학생(3·4학년)들이 주축이 되어 실내를 벗어난 광간예술로서 적극적인 조형의지와 더불어 새로운 광간의 대담한 추구로써 순수한 작가정신과 실험정신, 학구적인 작품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창립되어 활동하고있다.

사범대 의무발령제 실천대회

「의무발령제 선포식 및 실천대회」가 본교 사범대학(회장 : 김남준) 주최로 지난 20일 12시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사범대 가든식당 앞에서 있었다.

교원적체 해소와 의무발령제 실시를 요구하며 방음승(한교 · 4) 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개회자 국민의례, 경과보고, 구호제창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 현상타결 가졌다.

또한, 지난 25일 오후 2시에는 「국 · 사립 사범인의 무 발령제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식」이 호남지역 학생 대표자협의회 주최로 조선대학교 민주홀에서 있었다.

본교 학생 약100여명과 호남지역 5개대학학생들이 참가한 이날 선포식에서 의무발령제를 위해 먼저,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였고, 의무발령제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 열린 실천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남대까지 도보행진을 시도하였으나 전경에 의해 좌절, 조선대 교문밖에서 위력 대학생들이 연대 공동투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발족식이후 실천대회는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문 앞 국도상에서 약 30여분간 차단 시위를 벌였다.

Cross 선교합창단 노방 찬양 전도

Cross선교합창단(회장 : 조철수) 주최로 열리는 「노방 찬양전도」가 오는 11월3일 오후4시 민주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취지아래 열릴 예정인 이번 노방찬양전도는 작년과 지난 1학기에 이어 3번째가 된다.

광주화살 5공비리자 처단위한 학생 특별위원회 발족식

「광주학살 5공비리자 처단을 위한 학생 특별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20일 오후 2시 약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민중의례로 시작된 이날 발족식은 올림피후의 평가와 함께 민중 민주세력의 대응을 내용으로한 「현상황하의 정치정세 분석」과 구속학생들의 복교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날 발족식에서는 반미 자주화와 함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통일운동에 투쟁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광주학살 5공비리자 처단을 위해 결사내를 조직할 것과 서명운동을 전개, 전북통일 노래 한마당 전북지역 예선을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통일 노래 한마당 전북 지역 예선

전국 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 전북지역 예선이 지난 25일 오후2시 전북대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열린이 담긴 창작곡으로 총 7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본교 노래패 수레바퀴가 통일상을 차지 하였는데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통일상 : 숭례밟뛰 (전주대 노래패) 통일의 꽃

▲백두상 : 박선경 (전북대 음교2) 해방산천

▲한라상 : 신하 (전북의대노래패) 죽음을넘어

▲인기상 : 찔레꽃 (전북대 노래패) 한울림

통일상을 차지한 본교 노래패 수레바퀴는 오는 11월3일 전남대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이번대회에 참가했던 7개팀 중 본교 1팀, 나머지 6팀이 모두 전북대생이여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아쉬웠다.

교 수 동 정

▲이성택 (경영학과) 교수는 한 · 일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논문발표 및 세미나」에 참석차 지난 22일 일본동경에 출국,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공대 : 김기홍 (사교 · 2)

▲사범대여학생회장
기호1번 : 양도엽(국교 · 2)

空 約(?)

공약! 공약! 공약!
매년 이맘 때면 학생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선거공약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치열한 경쟁속에 각종 게시판을 가득 메운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허전함이 스며드는 이유는…….
믿자, 믿자 또 한번 믿어보자.

글 : 최규일 수습기자
사진 : 박민상 기자

無冠雜記

우리모두에게 띄우는사연(Ⅱ)

兄!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한 냉기가 피부로 느껴질만큼 결실의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읍니다.
여름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었지만 그 덕택에 풍성한 과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兄
한편으로는 이 가을이 몹시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구 묻지는 마십시요.
4년동안 끌어왔던 우리들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입고있는 피해가 너무도 컸다는 사실 때문 입니다.
그렇저럭 방치하고 그렇게 흘러버린 시간들을 아파하는 이들도 많로 있읍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학교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학교에 다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잘못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교육이고 과감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일 수는 없읍니다.
兄!
학업에 열중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실이 슬프고, 그로인해 다른 불이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슬퍼집니다.
다른 학교에 보내지는 추천장이 우리 학교에 아직 오지않았다는 농담같은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스쳐간 시간보다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방황해야 할런지도 궁금하구요.
兄!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가 먼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은 연구실과 강의실을 지켜야하고,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라도 최선책이 없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차선책은 되리라 생각 합니다.
이제는 강하게 외쳐대기 보다는 공공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했고 그 댓가를 지불받았는지, 지불받았다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의미있는 댓가를 지불받았는지.
하나의 결실도 거두지 못했다면 무엇때문인지, 자신의 공폿된점을 하나 둘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兄!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도 버리지도 않읍니다.
다만, 시간은 흐르는 시냇물 같으면서도 우리들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또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야될 우리들의 청춘이 흐르는 바람에 씻겨간다면 아니, 그렇게 우리들의 대학생활이 지속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디서 보상을 받겠읍니까.
兄,
지금은 우리가 주저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읍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피보의 늪에서 허우적 거릴 수도 없읍니다.
지금은 우리의 처지를 알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 입니다.

〈ㄷ〉

珍談會

○…천장벌 주석구석이 활발한 행사준비로 떠들썩하다던데.

선거철을 맞은 학내 곳곳에 공정선거를 유도하는 대자보가 붙는 등 한원내 민주화 요구가 점증하다고.

「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지만 신성불가침 지역에서 君子선출의 면모를 꼭 보여야 할터.

○…국민들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었다던데.

체신부 직할기관인 우정연구소가 우편물검열 업무중, 봉함편지까지 뜯아보아 일반인을 투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젠 편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구요.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던데.

최경, 용공분자로 몰린 운동권 학생들에게 의식을 녹화시킨다는 목적아래 인간이하의 고문이 취해졌기 때문이라고.

감제로 징집시켜 푸른 옷을 입히는 것만이 녹화사업은 아닐텐데.

○…교육의 상업화에 힘부가세가 유령무실해지고 있다던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수납액의 78%가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부가 (附加)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한다는 못된 것.

○…최루탄 생산과 구매사용량에 엄청 혹막이 가려졌다는데.

익은밥 먹고 선소리(?)

쓴 교육기관의 본색이 드러났다던데.

또 대학이 종합대 승격신청을 하면서 정규 교수인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학교재단 관계자 등을 전임강사 요원으로 허위보고 했다고.

필요에 씌기는 도래성을 쌓기보다 벽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천리안이 필요할 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개인 소득 1위라는 명예훈장에 5공비리 훈장도 하나 추가될 듯.

누울자리 봐가며 발 뻗어야지 벼락부자면 다인가?

○…온 나라를 좀쓸듯 파고든 5共비리가 종교계에서까지 발견됐다던데.

불교계는 사이비승려 및 용공분자들의 색출을 명분으로 전국사찰에 지원되었던 「10.27 법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화발에 짓밟힌 종교계도 민주화전선의 촉매제가 되어야 할 터.

○…공탁관리공단 임원 중 75%가 군출신이고 4급이상 직원은 모두 특채자라던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직급일수록 군출신 인사의 비율이 높다고.

어르신네들! 공탁관리공단을 차라리 군인관리공단으로 개명하심이 어떨런지.

○…「국정감사」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과민반응을 보이셨다는데.

감사를 하려는 전지 받으러 나온 건지 감사받는 죽을 감사주셔서 그러는데 뻗치는 기력일 터에 이은 밥 먹고 선소리 하는 이유 뭣현요?

○…사회화 최고봉인 불프장이 5공시절 중 30개나 루어기 허가도 만들어졌다던데.

전대통령의 배려로 몇군데는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되었다나?

아마도 이 그린벨트지역은 순수 (?) 하게 전씨만을 위한 방인 듯한 느낌.

써클동정

▲푸네소크 (회장 : 이준) 에서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창립6주년 기념행사인 도화축제를 신규회원들의 유대강화라는 취지아래 송광사 까치산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호롱 (회장 : 황찬연) 에서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추계 M · T를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대운산에서 가질 예정이다.

▲시나브로 (회장 : 황민) 에서는 추계 L · T를 지난 22일과 23일 간양일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내장산에서 가졌다.

▲스크린 (회장 : 박성주) 에서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써클의 발전을 위한 창립기념행사를 오는 28일 써클룸에서 가질 예정이다.

천 잠 게 시 판

천잠게시판은 각종 모임이나 아기자기한 메시지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천잠게시판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멋과 낭만을 찾아주는 약속 장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신문사(학생회관 306호, 구내전화 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0자 원고지 1매 게재시 1천원)

"우리의 진실한 대변자를 뽑을수 있을까요"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여 당신의 귀중한 한표를 망치시지는 않겠지요.
여기 후보자들의 모든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읍니다

◇일 시 : 1차 토론회—10월28일 11시
2차 토론회—11월3일 11시
◇장 소 : 중강당
주 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전주대학교 신문사

이웃 시인과의 만남 ⑦ 이 광 웅

재생의 불꽃으로 타올라

파도기적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안일한 자세 그것이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것은 옳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옳게 살기 위한 용부릴이 얼마나 철저히 풍제되고 억압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한 시인이 있다.

× × ×

가을이라서인지 제법 스산한 날씨의 번역스러움을 느낄 수 있던 날, 썬버타임제도 끝나 쉬이 어쩍어쩍해질 무렵, 이광웅시인을 만나기 위해 군산에 도착했다.

1940년 이리에서 출생한 이광웅시인은 이리 남성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나 생활현실문에 외국어대, 전북대를 다니다 어렵게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한다. 졸업후 교편생활을 계속해온 그는 군산 제일고 재직시 소위 오송회라 불리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오송회사건은 그 이름부터 조작된 것으로서 사건자체가 사건으로 칠 수도 없는 허구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광웅시인이 문학 특히, 시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면서 시기에 필사체 무었던 오장환의 「병든 서울」을 20여년이 지난 후 이사할 때 우연히 발견,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 박정석에게 그 복사본 한 권을 나누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마침 박정석을 찾아온 제자가 가지고 가다 버스속에 두고 내려 수사기관이 입수, 수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오송회사건은 1982년 수사기관에서 오송회라는 반국가적인 이적단체를 만들어 여러사람들로부터 거짓 증언,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이광웅시인은 그의 닫당 고문형사로부터 김일성주의자, 가장 악질로 낙인이 찍혔는데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일성주의를 모택동주의든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내가 김일성주의인줄 나 자신도 모르는데 당신이이렇게 아는가」라고 반문했지만 그 고문형사가 그렇게 귀짖짖더라며 그 때의 악몽이 기억되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그의 시는 마치 이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듯 하다.

「…/철쇄을 끊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치는/면도의 날을 세운다/…/겨울 식민지, 거대한/동물원의 강철제 —/무형한 풍상의 쑥지마저 부딪혀 절벽아 하얀/동물원의 철쇄을 넘어/가눈한 한엣 벌판에 이삭 줍던 나의 소년을 고요히 살해하고, /밝는 새벽, 힘줄 솟아나 보습을 가는 마음으로/피밭 속에 저무는 아빠/흔들리는 아방/흔들리는 촛불 밑에서/억울한 면도의 날을 세운다 타보지 마시오/…/내 가난한 노우트를 제발 들여다보지 마시오. —주시망상中—」

◀이 광 웅 시인

「주시망상」에는 누군가가 자기 일기장을 보고 있는 듯한, 자기를 감시하는 듯한 불안한 감정을 써놓았는데 이는 오송회사건으로 인해 자기의 사상이 담긴 일기장이 관주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다.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애국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며 이 시인은 「신년하나 때문에 20~30년을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김남주시인과는 바로 옆방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그는 0.7평의 관속같은 방에서 옴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을 먹으며 겨우 생명유지를 할만큼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그나마 햇빛을 볼 수 있었던 운동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었다는 이시인. 지금은 김남주시인과 함께 할수 있는 햇빛이 가득한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제 그는 6년만에 뿌리내리지 못한 외로운 나무가 기름진 토양에 뿌리를 내리듯 다시 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교사의 길이란/구절양장보다 어려운 밤길/여우한테 홀려 가는/보충수업의 길이다/…/—보충수업 10년中—」

또한, 자신의 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에 대해 이 시대에서는 시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은 시들은 사치스러운 감정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일찌기 1967년 유치환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지를 통해 문단에 데뷔하여 작품활동을 해온 그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 시집 출간을 못했었는데 1985년 그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부인 김문자씨가 증심이 되어 시집 「대밭」을 내놓게 된다.

부인 김문자씨는 오송회사건의 영향으로 당시 제직하던 고등학교에서 여종으로 전근발령이 나자 「요즘은 여태생도 앞장서서 화염병이나 돌을 던지며 줄시위를 하는데 가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 어루사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 여장부이다. 아마도 부인의 이러한 강한 의지력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나 지금껏 신념대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남편은 시로써 부인은 그 힘으로써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강한 신념은 우리를 깨우치는데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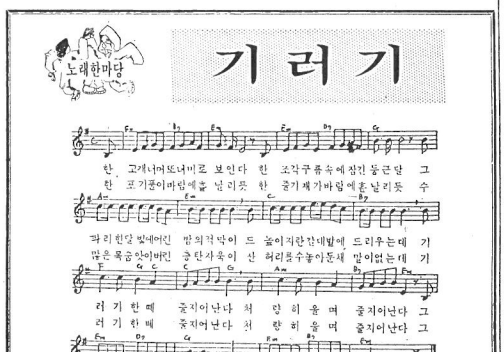
좀 더 좋은 선생님, 좋은 시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말에만 왕게 담변을 할 뿐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 × ×

이제는 흔한 말이 되어버린 「민주화」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최사슬 소리가 가시지 않은, 아직도 감시와 이념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이광웅시인.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승남 기자〉



의 식 (8)

최 을 성 (독문·2)

沈默을 깨지.
두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목이 없어도 좋다.
서로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자.

大地위에 음악이 흐르거든
眞實만을 얘기하며
춤을 추자.

이것은 몸부림이 아니다.
다만 소식의 사슬 풀고
파란 신호등에 불당겨
들어진 율대를 메꾸자는 역사의 진리임 뿐.

별뜨면 저녁날
우리는 술잔을 들었다.

취한 침묵이
사람이라 속삭이듯 하다.

소박한 아름다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성큼다가온 가을의 진한 감흥에 젖어봅니다. 가을은 인생의 환희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깊은 생각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농부님네의 환한 미소보든 아낌도 없는 고독한 외로움에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가을에는 풍요속에 침복이 있습니다. 행복속엔 보람도 있습니다. 머언 황금들녘 짚은 햇살에 비친 누런 벼이삭을 볼 때 가을은 우리에게 노스탤지어의 여운을 남겨 줍니다. 농부님네의 제 모양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땀방울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또 가을의 지는 낙엽은 정갈한 가을의 운치를 높여주고, 가을의 근본인 바람과 어우러진 붉은 모습은 침복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옛부터 선비는 신언서판(身言書判) 이라고 몸가짐이나 말씨, 문장력, 판단력까지 중요시 했읍니다. 즉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몸가짐과 표정에도 사람의 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상한 생각과 겸손한 생활에서 풍기는 매력이랄까? 가장 현명한 사람의 소박한 뭠됨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읍니다.

사람은 소박한 매력을 풍겨야 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생각이지만 가을의 풍요로운 실과나 곡식, 붉은 낙엽과 농부님네의 엷은 미소가 이것을 자연스레 증명해 줍니다. 진실되고 꾸미지 않고 강추지 않는 청순한 아름다움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있읍니다. 좋은 사람이나 그런은 사람들처럼 향수를 자아내게하고, 인위적이나 가공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의 발로입니다.

그렇듯 생각은 고상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 고립된 생활에서 얻어지는 감정이나 사치, 부끄러운 질투심에 생활이 흔들릴때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꽃이 피고, 희망의 노을이 돋고 열락의 새가 운다.」

이런 저런 생각속에서, 방학의 종착역이라할 수 있는 청춘의 가을에는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심히 바라보았던 푸르던 가을 하늘, 뭐처이면 홀로 괴로와했던일, 내면의 고통, 새로 내미는 서릿발에 토로했던 생활의 탄탄한 외욕이 돌보임 앞에 서게 됩니다. 계절탓일까? 깊어가는 가을, 쉴새없이 벌어지는 갖은 순경한 청춘의 보람을 느껴서일까?

자연은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바뀌는대로 희정한 외피가 부여되지만 가을의 환혹을 느끼기엔 다른 어떤 계절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청춘의 이름아래 인생의 가을에는 좀 더 숙연해지고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어야할 나이다. 풍요로운 계절이라, 마음 또한 충족하니 생각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가벼, 삶의 지표를 모색하고 힘있게 전진할도 청춘에게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활력소나 리듬이 부여해지는 생활 속에서 굵직한 테마를 찾아야 합니다. 청춘의 이름아래 가을의 풍요한 행복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감정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있읍니다. 소박한 생활 연속에서 보여지고 청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도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기에 꾸미지 않은 데 있고, 강추지 않은 데 있는 소박심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좋읍니다.

한줄에 우리야 심심한 점을 살아갈 편 안한해도 좋은 것입니다.

황 순 정(최계·1)

신간안내

핵무기는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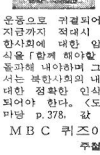
피터헤이스·류바 자르스키·월든 벨로지음/한국기독교사회 문제 연구원 역음.

이 책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핵전략의여제와 오늘, 핵무기를포함한 핵전력에 비처, 핵명령체계, 미 핵전략으로의 한국군 전력의 통합, 핵전쟁의 위험,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북한의 군사전략 등에 관해서 방대한 자료와 치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 모두를 단번에 질멸의 죽음으로 몰아넣고야 말,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정보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이 벌이는 핵무기놀음의 실상이 그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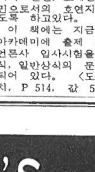
〈민중사 P206. 값 2.500원〉

세계와 인간
—주체의 존재·인식·실천—
편집부 역음



이 책은 북한사회를 추종하는 내적 논리인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중의 일부이다. 우리들의 조국통일운동이냐·북 어느 한쪽도 객체화할 수 없는 한국사회전체 변혁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적대시 하여온 북한사회에 대한 양호화된 인식을 「함께 해야할 조국」으로 돌파해 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내적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병행침되어야 한다. 〈도서출판 한마당 p.378. 값 4.200원〉

MBC 퀴즈아카데미
주최한 편저



퀴즈프로그램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있는 퀴즈아카데미 일명 「퀴즈 학당」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다정한 벗과 함께 세계로 나가, 직계는 자아의 발견, 크게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훈연지기를 기르도록 하고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퀴즈아카데미에 출제 된 문제와 언론사 입사시험을 위한 상식, 일반상식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도서출판 까치, P 514. 값 5.000원〉

영어 "돌파구 있다!"

지방대학의 암울한 취업현실을 보며, 특히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 앞에 가로놓인 무려운 취업 현실들을 뼈저리게 느끼며, 지난 장기적인 학내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수업중단에 따른 실력 배양 미흡과 대외적으로 매스컴에 따른 전주대 어미지 손상은 기업체들의 냉대와 기피현상을 가져왔읍니다.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 마저도 대부분 1차 서류 전형에서 좌절을 느껴야 하며, 어떤 확신도 없이 취업에 절치부심하며 이곳 저곳 무작정 뛰어야 된다는 사실을 머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제 손금을 아껴 배를 깎는 각고의 노력에 의한 실력배양만이 공개 채용 시험에서 많은 타 대학교 학생들과 당당히 대결하여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통감할때라 생각됩니다.

공개채용 시험에 대비한 가장 중요과목이 영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지금도 도서관에서 실력기초, 기본영어, 종합영어, MAN tm MAN등 교교생 영어교육서들을 불잡고 시름하는, vocabulary 22000, Academy—TOEFL등을 앞에놓고 고심하는 학형들에게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영어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능률없이 귀한 시간을 바치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알기위주학습방법과 구태의연한 학습자세의 지속에 따른 영어공부에 대한 의욕 상실과 번민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영어실력을 키운 학형들은 극히 소수의 행운아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방황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학형들, 영어를 아니 기회를 포기하려는 학형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그쳐서 뚜렷한 목표와 올바르고 빠른 영어실력으로 이끌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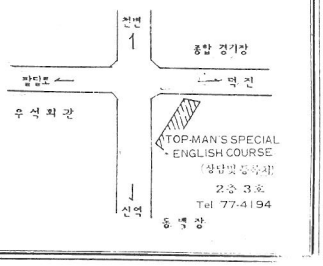
확신에 찬 의욕이 넘치는 끊임없이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들의 아픔을, 이상을 이루도록 이끄는 무엇을 만날수 없을까요?

오랜 기간을 영어때문에 방황하고 고심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던, 영어에 작은 기초마저, 실마리마저 없던 사람들이 3. 4개월 열심히 공부하여 영어에 상당한 실력과 자신감을 얻었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읍니까? 분명히 빠르고 올바른길이 있었읍니다. 지난 일부 전주대 학생들이 몇 개월간 밤을 세워 열심히 영어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모여 전주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Green circle을 조직했읍니다. 이제 그 보람있는 기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저 합니다

우리들의 고충을 알고 이제 우리들을 이끌수 있는 그 무엇 이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무엇이 있읍니다. 백여명의 학생들이 밤을 지새우며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영어실력을, 성공의 확신을 키우고 있읍니다. 기쁨과 열기에찬 진지한 걸은 전주대가 다시 4개월을 시작합니다.

전주대학교 Green Circle 회원일동

TOP-MAN'S
SPECIAL ENGLISH COURSE

제15기생 모집

등록:1988년10월20일11월4일(금)
회비:20만원(교재비 포함)
교재:문법, 어휘, 독해 및 부교재 일체
강의진행:일일6시간. 주5일간.4개월간. 엄격한 출석관리
강의시간:오후9시~오전2시(※방학시작 후 시간변경예상)
개강:1988년11월5일
종강:1989년2월27일
기타:M.T(1회) 체육대회(1회)
교수진:Grammar, Vocabulary, Reading skill, Composition — TOP MAN 신석호